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8호 (2023.12.22)

■ 이 슈

(경제) 2024년 국내 경제 전망 및
인천 경제 여건

■ 주요 산업 현황

(서비스)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8호 (2023.12.22)

Cotents

I. 이 슈

(경제) 2024년 국내 경제 전망 및 인천 경제 여건 1

II. 주요 산업 현황

(서비스)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통신) 빠르고 편리한 통신을 위한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개선 11

(산업) 중기부,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11

(경제) 법제처,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 개정 사항 소개 12

(건설) 정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12

(산업) 기재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13

(고용) 2024년 고령·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상반기 내 97% 이상 집행 추진 · 13

(산업) K-로봇경제 구축을 위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14

(보건) 코로나19 관련 대응체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김효영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경제

2024년 국내 경제 전망 및 인천 경제 여건



#2024년 경제전망 #대내외 여건 #인천 경제 여건

- 국내외 주요 기관의 경제전망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2023년에 비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2023년 1.2%~1.4%에 비해 소폭 개선된 2% 초반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OECD와 IMF는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 내외로 예상하며 낮은 무역성장세 및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분쟁 등으로 인해 2024년에는 글로벌 성장세가 올해보다 다소 약해질 것으로 전망
 - OECD는 2023년 11월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9월 발표한 전망치 대비 0.1%p 하향 조정한 약 2.9%로 전망했으며, IMF는 2023년의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발표와 동일한 3.0% 수준으로 유지¹⁾
 -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발표와 동일하게 2.7%로 예상한 OECD²⁾와 달리 IMF는 0.1%p 하향한 2.9%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World Bank는 2023년 및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각각 2.1%, 2.4%로, 2024년의 글로벌 성장세가 올해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각 기관별 전망에서는 2023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 대비 소폭 하향 조정(또는 유지)했으나, 2024년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표 1] 기관별 전세계 및 한국 경제전망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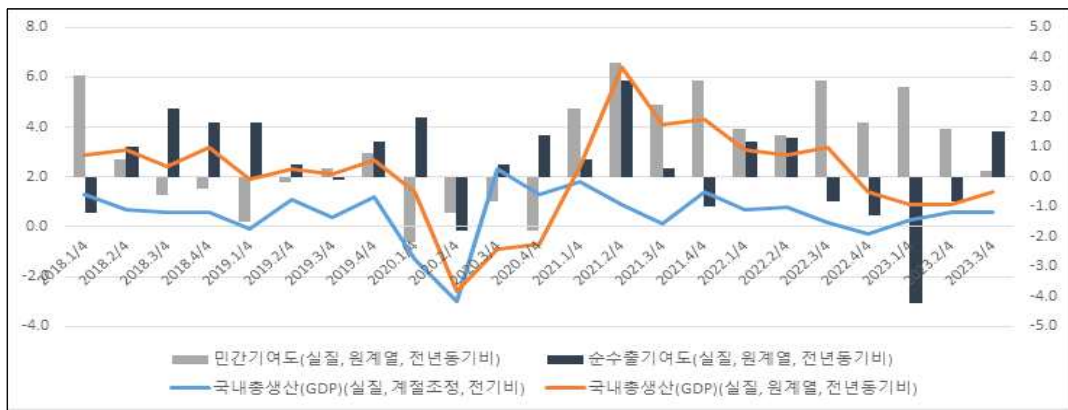
구분	세계		한국		
	2023 수정전망	2024 전망	2023 수정전망	직전 전망비 증감	2024 전망
OECD	2.9(2023.11)	2.7(2023.11)	1.4(2023.11)	-0.1	2.3(2023.11)
IMF	3.0(2023.10)	2.9(2023.10)	1.4(2023.10)	0.0	2.2(2023.10)
World Bank	2.1(2023.06)	2.4(2023.06)	-	-	-
ADB	-	-	1.3(2023.09)	-0.2	2.2(2023.09)
한국은행	2.9(2023.11)	2.8(2023.11)	1.4(2022.11)	-0.3	2.1(2023.11)
KDI	-	-	1.4(2023.11)	-0.1	2.2(2023.11)
한국금융연구원	-	-	1.3(2023.11)	0.0	2.1(2023.11)
산업연구원	-	-	1.3(2023.11)	-0.1	2.0(2023.11)
현대경제연구원	-	-	1.2(2023.09)	0.0	2.2(2023.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2023.11)	2.8(2023.11)	-	-	-

* 자료 : 기관별 경제전망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괄호 안은 가장 최신 자료의 발표 일자를 의미

- 1) 한국은행(2023.11)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11) 역시 2023년의 세계경제가 3%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며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양 기관 모두 2024년에는 세계 경제가 약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 OECD(2023.11)에 따르면 OECD 국가들 전체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약 1.4% 수준이 될 전망.

- **(국내 경제)** 2023년 3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 수준으로, 수출 경기가 IT산업과 對미국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민간소비 증가세가 다소 약화되어 2024년에는 완만한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
- △고금리 △고물가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성장세 둔화와 설비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차공 물량 중심의 건설투자 증가와 반도체 수출 개선세로 국내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2022년 3분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펜트업(pent-up) 효과³⁾로 증가했던 민간소비는 올해 들어 점차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2023년 3분기 설비투자는 △고금리 △제조업 경기회복 지연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진한 모습
- 2023년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등의 공급 개선 및 가격 상승세 축소로 인해 기차공 물량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 등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수입 및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1.6%, 9.7% 감소하며 올해 들어 동반 감소하는 추세
-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6개월 만에 흑자 전환되었으며, 향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 개선세에 힘입어 흑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자료 : KOSIS 참고 및 재구성

* 주 : 좌측은 실질GDP 증감률을, 우측은 기여도 증감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 단위는 %(좌), %p(우)

[그림 1]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과 민간·수출 성장기여도

[표 2] 분기별 소비·투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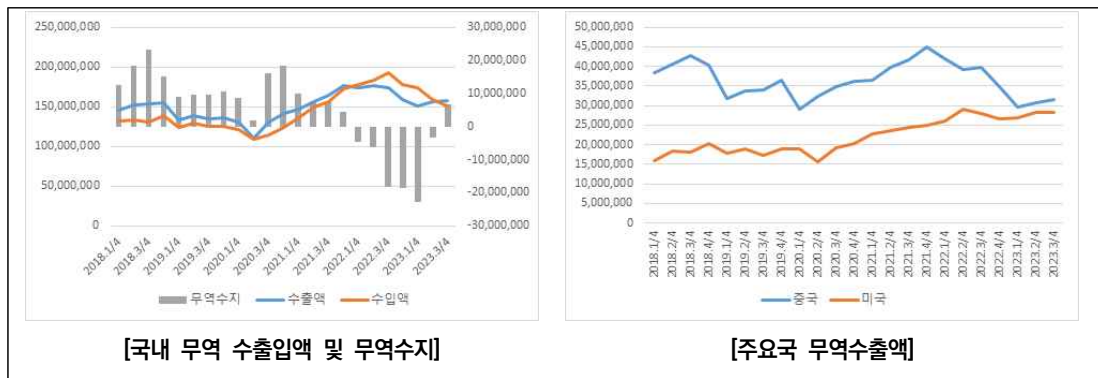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22.2/4	2022.3/4	2022.4/4	2023.1/4	2023.2/4	2023.3/4
민간소비	4.1	5.2	3.3	4.6	1.6	0.2
설비투자	-6.7	4.4	6.5	5.9	4.7	-4.2
건설투자	-3.7	-2.0	-1.8	1.9	1.7	3.8

* 자료 : KOSIS 참고 및 재구성

* 주 : 실질,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이용

3) 펜트업(pent-up) 효과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억제되었던 수요가 해당 요인이 해소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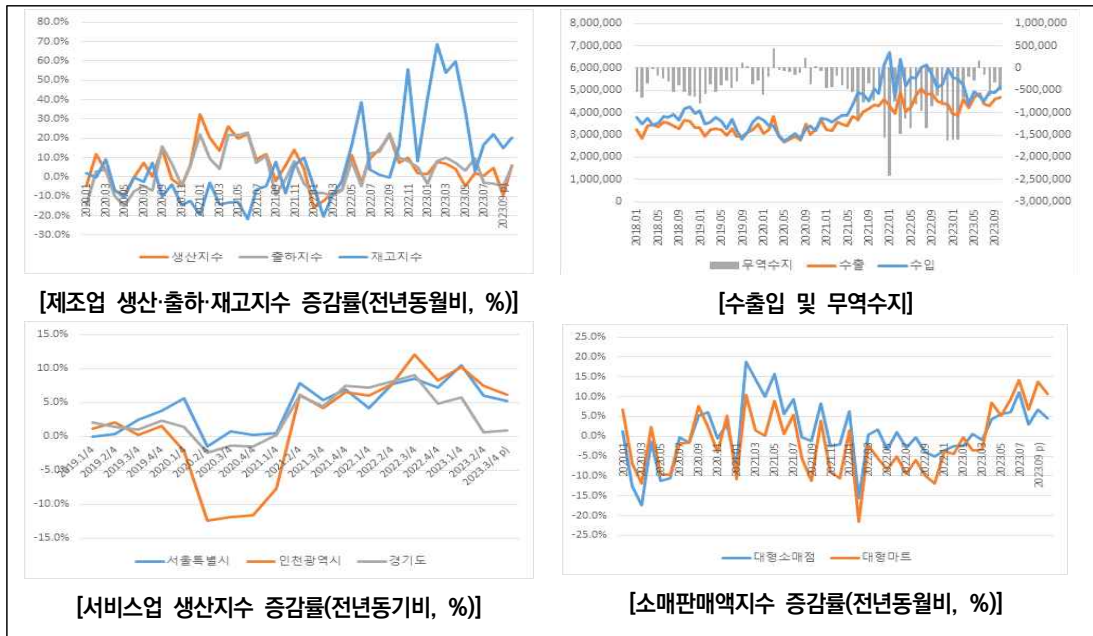
* 자료 : KOSIS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그래프의 수출입액은 천 달러 기준으로 작성

2 : 국내 무역 수출입액 추이 그래프의 좌측은 수출입액 기준, 우측은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작성

[그림 2] 분기별 국내 무역수출입 추이

- **(인천 경제)** 인천시 제조업 생산 및 수출 추이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액의 증가세는 2023년 초에 비해 다소 둔화
 - 2023년 10월 기준 인천 제조업 생산 및 출하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0%, 5.7% 증가한 123.1, 118.8 수준이며, 재고지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20.1%, 전월대비 3.2% 증가한 117.5로 전반적인 경기가 개선세
 - 10월 제조업 생산 경기는 의약품(26.7%), 전기장비(10.8%), 전자부품(8.0%)의 주도로 개선
 - 2023년 10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한 약 47.0억 달러,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한 약 51.8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액이 증가세로 전환되며 10월 무역수지는 약 4.8억 달러 적자를 기록
 -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9.2%), 의약품(22.2%), 무선통신기기(38.7%) 등의 품목이 수출 증가에 기여했으며, 주요 교역국인 미국(3.9%)으로의 수출이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점도 수출 증가에 영향
 - 2023년 1~10월 수출입 누계에 따르면, 수출액 및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7%, 12.5% 감소한 442.3억 달러, 499.3억 달러 수준으로, 수입액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소폭 개선
 - 2023년 3분기 기준 인천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1분기(10.2%) 및 2분기(7.4%)에 비해 다소 감소
 -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와 대형마트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4.5%, 10.7% 증가한 108.0, 94.1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증가세는 지난 7월부터 약화



* 자료 : KOSIS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인천시 산업의 생산·출하·재고지수 증감률은 원지수를,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소매판매액지수의 증감률은 불변지수를 활용
2 : 월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그래프는 1,000\$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좌측은 수출입액, 우측은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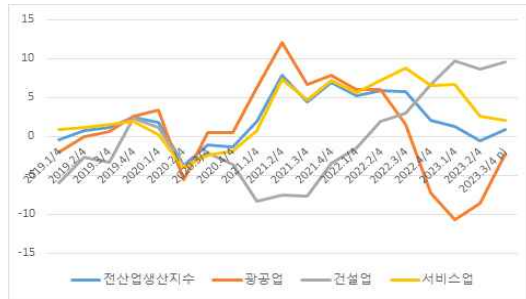
[그림 3] 인천 경제·산업 현황

- 우리나라 경제의 대내적인 하방압력 요인으로는 △물가상승 △소비여력 △대출잔액 △유가 수준 등이 있으며, 대외요인으로는 △글로벌 수요 둔화 △중국 경기 회복 지연 △지정학적 불확실성 △국가별 금리 정책 및 금융불안⁴⁾ △대미금리차 및 환율 등이 존재
-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의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요소가 존재하며, 국내 전산업 생산지수는 2023년 3분기 들어 상승 전환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
 - 2023년 3분기 업종별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건설업 생산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업 증가세 둔화, 광공업·제조업·공공행정의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해 전산업생산이 소폭 증가
 - 물가상승 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원유 감소,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원화 약세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근원물가가 목표 물가인 2%를 넘어서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험 확대 및 공급망 불안에 따른 상승요인이 존재하여 물가 상승 둔화 추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2023년 3분기 기준 국내 가계의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한 반면 흑자율은 1.8% 감소하였으며, 가계대출⁵⁾ 역시 전년동기대비 상승세로 전환함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 존재
 - 국내 가계의 명목 및 실질 경상소득은 2022년 3분기 이후 지속되던 전년동기비 감소세가 2023년 3분기 들어 상승 전환

4) 국내 및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라 국내외 경기가 둔화되면서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하에서 유가증권 및 부동산 PF 등 위험 부문의 투자를 확대한 금융권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함.

5) 판매신용을 제외한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금액 자료를 이용함.

- 그러나 2023년 3분기 기준 가계의 실질 가계수지 흑자율이 5분기 연속 전년동기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계대출액 역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가계의 구매력 감소로 인한 민간 소비 둔화 가능성 존재
 - 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부담 확대, 국내외 수요 부진, 금융 부문 및 지정학적 위험 확대, 고물가로 인한 구매력 약화 등 민간 소비 증가를 제약할 요인이 산재하여 주의가 필요
 -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 상승세에 따라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의 기준금리 상향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미금리차 및 환율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고환율이 유지될 가능성 존재
 - 또한 글로벌 수요 둔화 및 공급망 분절화, 전쟁 등의 지정학적 불안 요소 확대될 경우 에너지 가격과 글로벌 무역을 통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지속
- 우리나라 경제에 대·내외 불안 요소가 산재해 있는 만큼 인천시는 지역 내 △물가상승률 △민간 소비 △기업 생산 및 재고 △수출입 등의 경제·산업 지표와 취약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
- 한국은행 조사 지역별 기업경기실사지수에 따르면 인천의 2023년 11월 인천 제조업 업황 및 12월 전망 BSI는 전월대비 하락한 60대 수준으로 기업들은 여전히 경기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비제조업의 경우 11월 업황 및 12월 전망 BSI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중 70대 수준을 유지하며 기업의 체감경기 부진이 지속
 - 인천지역 제조기업은 ‘내수부진(30.0%)’, ‘불확실한 경제상황(19.2%)’이, 비제조기업은 ‘인력난·인건비 상승(27.0%)’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확인
 - 11월 인천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전월대비 13.2p 하락한 83.3으로 지난 8월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부정적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 전국 및 인천의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총액은 전년동월대비 1.9%, 1.0% 감소하였으나,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 가격 하락 및 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가계 건전성 및 소비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 인천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소비지출전망 △생활형편전망 △현재경기판단 등 구성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전월 대비 4.1p 하락
 - 이처럼 국내외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지역 내 가계 및 기업의 활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산업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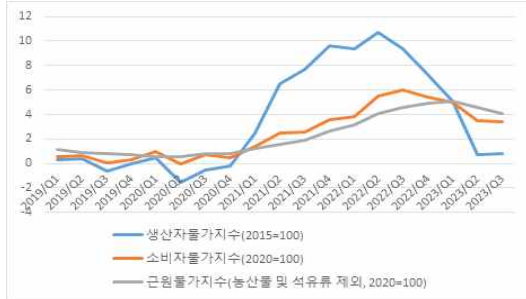
[국내 산업생산지수 증감(전년동기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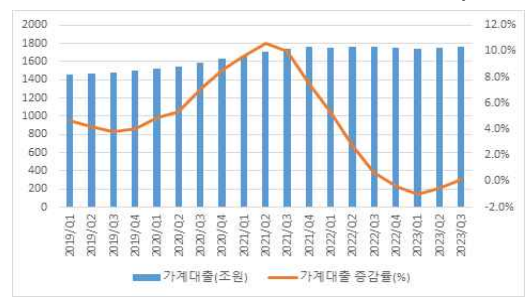
[국내 가계 경상소득 및 흑자액 증가율]



[월별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국내 생산·소비 물가지수 증감(전년동기비, p)]



[국내 가계 대출잔액 및 증가율]



[대미금리차 및 원-달러 환율(원)]

* 자료 : KOSIS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소득상승률 및 흑자'의 좌측은 소득상승률, 우측은 흑자율을 나타내며, '가계 대출잔액'의 좌측은 가계대출 잔액, 우측은 전년동기대비 대출 증감률, '대미금리차 및 원-달러환율'의 좌측은 금리 차이를, 우측은 환율 금액을 표기

[그림 4] 분기별 국내 산업생산 및 물가 추이

서비스 >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⁶⁾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액

- **(서비스생산)** 2023년 3분기 전국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보험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천은 전기 및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며 서비스업 생산 경기가 개선
 - **(전국)** 3분기 전국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기대비 0.5% 감소,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한 114.6 수준으로,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강보합 추세를 유지
 - 인천(6.1%), 서울(5.2%), 광주(4.6%) 등은 운수·창고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의 호조로 생산지수가 증가했으나, 제주(-1.9%), 전남(-1.4%), 강원(-1.0%)은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생산지수가 하락
 - 서비스업 13개 업종 대부분의 생산지수가 100 이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은 3분기 연속 100 미만으로 집계되며 생산 부진이 지속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 및 창고업(8.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6.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5.1%) 순
 - **(인천)** 인천의 3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기대비 1.9%,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한 120.9로,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13개 서비스 업종 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을 포함한 8개 업종에서 생산지수가 감소했으나, 운수 및 창고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생산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생산지수가 개선⁷⁾
 - 인천의 전년동기대비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운수·창고업(4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9%) △도매 및 소매업(6.4%)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동기비 감소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은 △숙박·음식점업(-8.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6.3%) △정보통신업(-5.3%) 순
 - 운수 및 창고업의 생산지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생산지수는 네 분기 연속 전년동기비 감소

6) 통계청(2023.11), '2023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참고.

7) 다만, 증가세는 2023년 2분기(7.4%)에 비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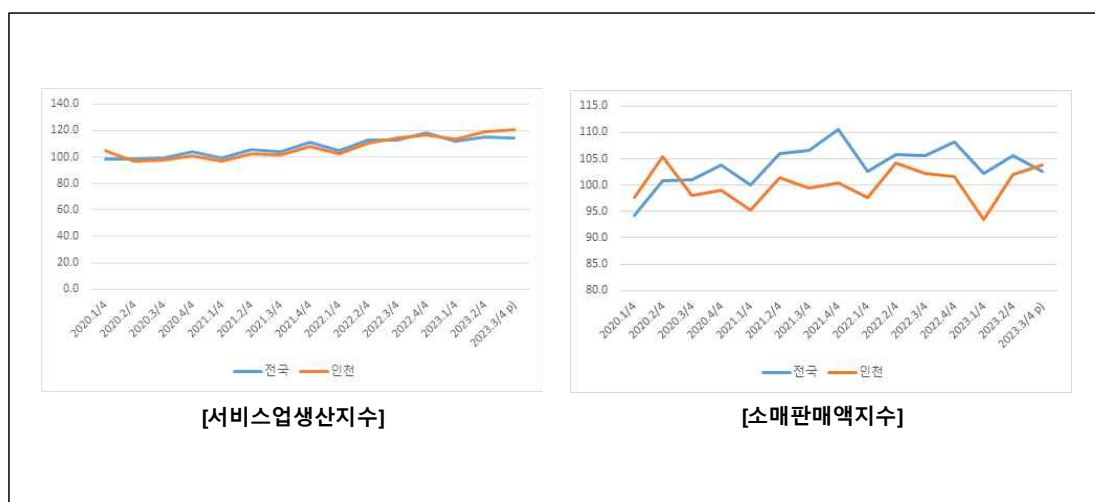
[표 1] 서비스업 주요 부문 생산지수

지역	항목	'23.1/4	'23.2/4	'23.3/4 (p)	'22.3/4	전기비	전년 동기비
전국	도매·소매업	106.7	106.8	104.4	106.4	-2.2%	-1.9%
	운수·창고업	125.6	134.3	139.8	128.6	4.1%	8.7%
	숙박·음식점업	115.8	120.7	120.9	126.8	0.2%	-4.7%
	금융·보험업	124.2	123.9	123.6	117.9	-0.2%	4.8%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	144.0	187.7	181.6	185.5	-3.2%	-2.1%
인천	도매·소매업	106.0	109.3	109.9	103.3	0.5%	6.4%
	운수·창고업	146.6	166.3	178.4	127.4	7.3%	40.0%
	숙박·음식점업	104.2	109.6	108.5	118.1	-1.0%	-8.1%
	금융·보험업	114.4	113.9	112.7	110.9	-1.1%	1.6%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	180.8	192.2	363.3	339.7	89.0%	6.9%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서비스업생산지수(2020=10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전기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비율(%)로 표기

2 : 각 자료는 산업별,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불변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서비스업생산지수(2020=100.0)' 및 소매판매액지수(2020=100.0)'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소매판매액지수의 전국자료는 '재별 및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의 불변지수를 사용

[그림 1] 서비스산업 동향 추이(2023년 3분기)

○ **(소매판매)** 2023년 3분기 전국 소매판매액지수는 고금리 장기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가계 소비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보이는 반면, 인천은 2023년 초부터 세 분기 연속 개선

- **(전국)** 전국의 소매판매액지수는 전기 및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한 102.6으로 약보합세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추세
 - 2023년 3분기 전국 소매판매액지수는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11개 지역에서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여 약보합세를 유지
 - 지역별로는 전문소매점 및 면세점 등의 판매 감소로 △제주(-6.4%) △전남(-5.9%) △서울(-5.5%) △경기(-5.4%) 등 네 곳의 전년동기대비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산·대전(2.0%) △인천(1.5%) △세종(1.3%)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
- **(인천)** 3분기 인천의 소매판매액지수는 전기대비 1.6%,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103.7로, 전년동기비 감소세가 증가 전환
 - 면세점 및 대형마트의 판매 지수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129.6%, 13.1% 증가했으나, 슈퍼마켓·편의점, 연료소매점 등 소규모 점포의 소매판매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판매액 지수 개선세에 영향

[표 2] 전국 및 인천 업종별 소매판매액지수

지역	항목	'23.1/4	'23.2/4	'23.3/4 (p)	'22.3/4	전기비	전년 동기비
전국	백화점	127.4	140.0	126.4	125.1	-9.7%	1.0%
	대형마트	93.7	91.5	102.5	99.4	12.0%	3.1%
	면세점	70.6	77.5	77.9	106.5	0.5%	-26.9%
	슈퍼마켓 및 잡화점	88.4	89.5	91.8	92.3	2.6%	-0.5%
	편의점	95.0	107.4	110.3	115.9	2.7%	-4.8%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100.7	108.7	103.2	102.1	-5.1%	1.1%
	전문소매점	105.8	104.9	97.4	102.4	-7.1%	-4.9%
	무점포소매	110.3	111.5	111.2	109.6	-0.3%	1.5%
인천	대형마트	90.6	95.9	106.9	94.5	11.5%	13.1%
	면세점	169.8	214.7	234.0	101.9	9.0%	129.6%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81.9	88.8	91.3	101.5	2.8%	-10.0%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92.0	105.6	101.9	103.5	-3.5%	-1.5%
	전문소매점	93.7	95.6	99.9	99.9	4.5%	0.0%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소매판매액지수(2020=10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2 : 각 자료는 시도별,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중 불변지수를 사용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3.11 잠정)

(단위 : 십만\$, %)

	전국					인천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반도체	101,926	-11.4	161,475	4.3	59,549	17,116	32.8	19,159	12.1	2,043
자동차	17,635	-24.0	82,404	16.2	64,770	1,235	-18.9	8,337	15.0	7,102
기계장비	46,282	-17.6	69,819	29.3	23,536	4,540	-13.4	5,539	16.0	999
바이오-의약	8,673	-8.4	5,650	38.2	-3,024	1,296	13.0	3,780	67.3	2,484
바이오-화장품	1,540	-3.4	7,460	18.8	5,920	25	-3.5	1,641	-4.6	1,616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3 : 수출입지표 단위 오기를 이번 호부터 수정

통신

▶▶▶ 빠르고 편리한 통신을 위한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 5일 진행된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5G 완전 전환 기념행사에서 향후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정책 방향’을 발표
 -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난 2012년 추진을 시작하여 2023년까지 총 5.8만 개소의 공공장소와 전국 29,100대의 시내버스에서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날짜를 기준으로 전국 시내버스에서 제공되는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완전 전환
 - 과기정통부는 향후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신기술 적용 추진 △공공와이파이 재배치 △상용 와이파이 개방방식 개선 △운영 관리·장애 대응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와이파이 정책 방향’을 발표
 - 내구연한(7년)이 경과된 노후 와이파이 및 장애 발생 와이파이를 2024년부터 WiFi 7 기반의 신제품으로 교체하고, 이용객이 적은 와이파이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소로 재배치하여 품질 및 운영효율성을 제고
 - 또한 '24년 상반기 내 유·무선 통신장애 시 통신 3사가 자동으로 상용 와이파이를 개방하도록 개선하고, 공공와이파이 장애 발생 시 출동 조치 시간 단축 및 민원 접수 경로 확대하는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

산업

▶▶▶ 중기부,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여, 119조 원에 달하는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제시
 -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 제품 50% 이상 의무 구매, 직접생산 확인제도, 공공구매론(loan) 등 정부가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포괄
 - 정부는 금번 발표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 부담 완화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 제고 △신제품의 공공구매 시장 참여기회 확대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 등 다양한 방면에서 공공구매제도를 개선할 계획
 -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제도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인증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유사한 성격의 납품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기관 간 합동 조사를 추진
 -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 실적에서 대기업·해외제품을 배제하고,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신기술 포함(최신화), 구매 제품 내 국산 부품 사용 유도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의 변모를 지원할 계획

#법제처

- 법제처가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한 「소득세법」,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등 2023년 연말정산('23.01.01 이후 소득)부터 적용되는 세법의 개정 사항을 소개

법령	구 분	기 존	변 경
「소득세법」	근로자 식대 관련 비과세	• 10만 원 한도	• 20만 원 한도
	과세표준 하위 3개 구간 조정	• 1,2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이하 6%
		• 4,6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이하 15%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이하 24%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조건 충족 노동조합의 10~12월 회비 소득공제	• 연간 300만 원 한도	• 연간 400만 원 한도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	• 조합비 15% 세액공제 • 1,000만 원 초과 시 30%
		• 연간 150만 원 한도	• 연간 한도 2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10%	• 15% 공제율 적용
		• 5,500만 원 이하 12%	• 17% 공제율 적용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시가 3억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세액공제	-	• 10만 원까지 100% 공제 • 10만 원 이상 16.5% 공제율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2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 영화관람료 30% 공제 추가 • '23년 사용분 공제율 확대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향후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의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의 카르텔을 혁파하는 내용의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
- 「LH 혁신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LH의 권한을 축소하여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을 원천 차단할 계획
 - LH 설계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하는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 한편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를 목표로 △감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설계업무 분야별 책임 명확화 △건설현장 감독체계 강화 등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관련 법령 체계를 2024년 상반기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

#기획재정부

- 지난 12월 13일 정부는 광물·소재·셀·사용 후 배터리 등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지원과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
 - 금번 대책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
 - 동 대책에 따라 정부는 핵심광물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의 세액공제 및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
 - 이차전지 특허의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소재·셀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법과 3단계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
 - 한편 △이차전지 산업분야 38조 원+α 정책금융 및 관련 펀드 조성(금융) △초격차 확보 연구개발(R&D)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등 인력양성 지원(전문인력) △실증사업 및 규제혁신을 통한 이차전지 활성화(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이차전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추진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 정부는 지난 14일 일자리전담반(TF) 제12차 회의에서 '2024년 직접일자리 조기집행 등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23년 11월 및 '24년 고용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주요 지표 분석을 논의
 - 금번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는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소득 안정을 위해 2024년 1분기 내 연간 직접일자리 계획인원(정부 예산(안) 기준 117.7명)의 90%, 상반기 내 약 97% 이상을 조기집행 할 계획
 - 또한 2024년 노인일자리 수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비중을 '23년 31.1%에서 '24년 36.5%로 확대하는 등 직접일자리와 관련한 지원 강화를 추진
 - 향후 일자리 TF 등을 통해 채용 현황, 예산 집행 실적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사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 고용 현황 점검에 따르면 '23년 11월 고용률 및 실업률은 각각 63.3%, 2.3% 수준으로 11월 기준 역대 최고·최저 수준이며, 취업자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7.7만 명 증가하는 건조한 흐름이 지속
 - 국내 주요 기관에 따르면 지난 2년간의 높은 취업자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및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024년 고용률 및 실업률 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로봇산업의 국가 성장동력으로서의 육성을 위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여 K-로봇경제 구축을 추진
 - 동 전략은 반도체, 배터리, IT 등 든든한 후방산업과 국내 우수한 로봇 제조 역량을 활용해 신성장동력으로써의 K-로봇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①경쟁력 강화 ②전산업 영역에 로봇 보급 확산 ③법령 개편을 통한 제도기반 마련 등 3대 핵심전략을 제시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8대 기술 확보 △전문인력 1.5만 명 이상 양성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30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민관합동으로 3조 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
 - 2030년까지 제조·물류·복지·안전 등 전 산업 영역에 100만 대 이상의 로봇을 보급하여 생산성 향상 및 사고율 저감 등 로봇의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향상하고, 해외인증을 지원
 - 「지능형로봇법」 전면 개편을 통해 기술 진보와 로봇산업 변화에 상응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하여 개발 로봇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추진
 - 이를 통해 산업부는 2030년까지 국내 로봇시장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육성하고자 계획 중이며, 로봇제조기업, 부품기업, 지원기관 등 11개 기관이 첨단로봇 산업생태계 조성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일반의료체계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해 일부 대응체계를 개편하며,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경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마스크·치료제·예방접종 △입원 치료비 지원 △감시·통계 △대응체계와 관련한 수칙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진료·병상 △진단·검사 등의 규정이 개편될 예정

분야	현행 (~'23.12)	개편 ('24.01~)
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 운영(의료기관·보건소 무료 PCR 검사)	•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검사
진단·검사	• 우선순위 PCR 무상 지원	• 한시적 급여 적용 및 선제검사 관련 지침 개정
병상	• 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 운영	• 지정격리병상 해제
마스크	• 의무 일부 유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유지
치료제·예방접종	• 무료	• 유지
입원치료비	•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 유지
감시·통계	• 양성자 감시	• 유지
대응체계	•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 유지

참고 자료

-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3.11.
- IMF,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3.10.
- WORLD BANK GROUP, 「Global Economic Prospects」, 2023.06.
- World Economic Forum, 「Chief Economists Outlook」, 2023.09.
-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23.09.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3.11.30.
- 한국개발연구원(KDI), 「KDI 경제전망 2023 하반기」, 2023.11.09.
- 한국금융연구원(KIF), 「2024년 경제전망」, 2023.11.
- 산업연구원(KIET), 「2024년 경제·산업 전망」, 2023.11.20
-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 2024년 한국 경제 전망」, 2023.09.2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 2024년 세계경제 전망」, 2023.11.14.
-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동향과 전망 2023~2024년”, 2023.11.16.
- IBK 경제연구소, 「2024년 경제환경 전망」, 2023.11.21.
- 통계청, “2023년 9월 산업활동동향”, 2023.10.31.
- 통계청,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23.11.30.
- 국가통계포털(KOSIS), ‘국민계정’, ‘전산업생산지수’, ‘SITC에 의한 무역통계’.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가계신용통계’, ‘물가통계’, ‘환율통계’, ‘가계수지통계’, ‘주요국제통계’.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한국은행 인천본부, “최근 인천지역 실물경제동향”, 2023.12.06.
- 한국은행 인천본부, “2023년 11월 인천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2023.11.29.
- 인천본부세관, “2023년 10월 인천지역 수출입 현황”, 2023.11.21.
- 주택산업연구원, “1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68.8로 전월 대비 18.9p(포인트) 하락 11월 자재수급지수는 12.6p 하락”, 2023.11.14.
- 한국은행 인천본부, “2023년 11월 인천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2023.11.28.
- 통계청, “분기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2023년 3/4분기)”, 2023.11.09.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4배 빠른 5G로 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2.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 완화…신기술 제품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2023.12.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법제처, 2023.12.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발…LH 전관업폐는 입찰 배제”, 국토교통부, 2023.12.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차전지에 5년간 38조 정책금융 지원…배터리 재사용 생태계 육성”, 기획재정부, 2023.12.13.
- 기획재정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2023.12.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1분기 내 고령·취약계층 직접일자리 90% 조기집행 추진”,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2023.12.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30년까지 로봇 100만 대 보급…K-로봇경제에 3조 원+α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2023.12.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 77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023.12.15.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8호(2023.12.22)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3년 12월 22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